



체제전환 이후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연구*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우혜영

한국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 성장과 같은 양적 변화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당 국가의 '행복'과 '신뢰' 등 질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World Value Survey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고, 특히 대인 신뢰, 기관별 신뢰, 협동, 관용, 연대 등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했다. 국가 수준의 행복도 비교를 위해 '삶의 만족도'와 '대인신뢰(사회자본)'를 대리변수로 하여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했고, 특히 해당 변수를 북유럽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변수값 변화의 상대적 의미를 규명했다. 분석 결과, 체제전환국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70.5%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고, 대인 신뢰 수준은 북유럽 국가들이 0.62 수준인데 비해 훨씬 낮은 0.2 정도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0.2 이하의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가진 국가에서도 행복도가 높게 관찰된 경우도 있었으나, 0.2를 상회하는 대인 신뢰 국가의 경우 행복지수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체제전환 이후 해당 국가들의 행복도는 오히려 하락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인 신뢰의 약화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체제전환, 삶의 만족도, 행복, 대인 신뢰, 사회자본]

* 이 논문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8S1A3A20751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유용한 논평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방법론

1) 문제 제기

체제전환은 특정 체제에서 또 다른 특정 체제로의 이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체제의 등장과 소멸, 변화를 탐색할 때 제기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른바 ‘구체제(ancien régime)’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이를 대체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체제전환을 통해 정치적 자유와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어느 만큼 향상시켰는가로 평가될 것이다.

‘행복’은 경제자본의 축적과 같은 물질 풍요 외에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된 사람들 간의 신리와 주관적 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몇 가지 경제적 지표들의 변화도 중요하나, 경제성장에 수반된 사회적 현상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체제전환 연구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양적 성장’의 요인분석과 결과 탐구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체제전환국의 ‘질적 성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및 의식구조 변화 등을 핵심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경제성장 및 제도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한다. 첫째, 양적성장 중심의 기존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었던 ‘만족도’와 ‘행복’을 주요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체제전환 과정과 이후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상관관계는 어느 수준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가수준의 행복도 비교를 위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하여, 체제전환국을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또한 체제전환 전과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체제전환’이 매개됨으로써 관찰된 삶의 만족도의 변화의

유의미성과 변화값을 추정한다. 셋째, 국가단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착하기 위해 1인당 실질소득, 실업율과 같은 경제적 변수 외 사회자본(대인신뢰)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구축하고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대인신뢰 간 유의미성을 추적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분석 대상인 체제전환국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향후 남북한 통합을 대비한 정책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Easterlin의 연구가 실증적으로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논문(Easterlin, 1974)을 발표한 이후, 경제학에서 삶의 질을 재단하는 척도로써 행복(Happiness) 혹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활용하는 행복의 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으로 삶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성장' 척도인 국내 총 생산(이하 GDP)는 현재 국가 경제 활동의 단면을 보여 줄 뿐, 부의 가변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환경 파괴, 사회적 관계, 건강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복 연구는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폭 넓은 변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안('질적 성장')으로 제시되었다(Fleurbaey, 2009). 체제전환 국가의 행복을 연구한 논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체제전환 국가 행복 연구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발견은 사회 경제적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체제전환 국가들의 행복도가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체제전환 행복 격차(Transition Happiness Gap)'라는 용어로 행복 연구의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Sanfey & Teksoz, 2007; Guriev & Zhuravskaya, 2009; Easterlin, 2009). Guriev, et al(2009)은 체제전환 지역 행복의 격차 이유를 불공정함과 불평등, 공공재의 저하,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열망 기준의 변화 등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같은 저자의 최근 논문(Guriev and Melnikov, 2018)에 따르면 체제전환 행복 격차는 2016년 경 좁혀졌으며, 이는 체제전환 지역의 행복 지수 상승과 대조군의 행복 하락에 기인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거시 경제 변인 중에서 체제전환국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GDP의 역할이다. 통상 물질적인 가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나, Easterlin의 역설에 따르면, 국가 간 시계열 분석을 했을 때 GDP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행복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그 규모도 미미하다. 이는 같은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무감각해지는 쾌락의 쳃바퀴(Hedonic treadmill), 혹은 비교 기준의 상향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하향되는 열망의 쳃바퀴(Aspiration treadmill)로 설명할 수 있다(Kahneman, 1999). 학자들에 따라서 쾌락의 쳃바퀴가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반면(Kahneman & Krueger, 2006), 열망의 기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연구(Deaton, 2008)도 있다. 체제전환국은 이런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GDP와의 상관관계(Bartolini, et al., 2017), 그리고 GDP 증가와의 상관관계(Mikucka, et al., 2017)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체제전환 지역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 수준의 실업률 또한 중요한 거시 경제 변인이다. 행복연구의 실증분석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2000년대 초반부터 거시 경제적 변인들과 행복 지수를 회귀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실업률이었다. Di Tella, et al. (2003)은 높은 실업률이 실업자 뿐 아니라 사회 일반에 불안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전반적인 행복감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증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업은 금전의 손실 뿐 아니라 사회관계의 손실, 사회인으로서의 자아 상실, 자존감의 하락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Winkermann & Winkermann, 1998), 비금전적인 손실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금전적 손실보다 크다는 것이 행복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Helliwell & Huang, 2014). 최근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행복과 실업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다. Norton al., (2018)은 우크라이나 longitudinal data(2003-2012)를 활용하여 실업의 낙인 효과(scarring), 적응 효과(adaptation), 그리고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와 행복을 연구하였으며, 과거의 실업 경험은 체제전환 행복 격차의 약 8% 설명력을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체제전환

시기에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GDP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이후 체제전환국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거버넌스와 행복의 상관관계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Helliwell & Hwang (2008)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와 Governance Matters IV database를 활용하여 75개국 160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1인당 GDP는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나 정부의 질 (quality of government) 변수를 넣는 순간 영향이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정부의 질은 꾸준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연구자들은 정부의 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의 서비스 전달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에 관련한 네 개의 변수 (정부 효과성, 규제의 효과성, 법치, 부패의 통제)와 민주주의 절차(democratic process)에 관련한 두개의 변수 (참여와 책무성, 정치적 안정성)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비교적 가난한 국가는 정부 서비스 전달 관련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민주주의 절차 관련 변수들은 부분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반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난한 국가들은 진실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모습이 더 중요한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Hayo(2007)은 7개의 동유럽 국가들의 초기 체제전환기 (1990년대초) 삶의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1인당 GDP보다 실업률, 인간개발정도 (human development index),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무조건 행복감을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주관적 웰빙이 1981년 헝가리보다도 더 낮아졌으며, 경제적 어려움, 환멸, 높은 범죄율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다른 변수들(경제 성장 등)과 동행할 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Inglehart & Kilngemann, 2000).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는 행복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증명한 실증연구도 있다. Helliwell(2006)은 세계 가치관 조사 (World Value Survey)를 통해 136개 국가(2006년 저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는 자살자의 수와는 음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와는 양의 관계가 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Bjørnskov(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도를 최고점과 최저점 차의 10%만큼 높일 때, 삶의 만족도는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나, 1인당 소득을 25%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였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데, 결혼과 가족,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와의 연대, 시민 참여, 신뢰는 독립적이고 의미있게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과 법률 시스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Helliwell & Putnam, 2004). 체제전환 국가 대상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가 GDP에 견줄 만큼 행복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Bartolini, et al., 2017).

국가 단위의 거시 지표 외에도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요소도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연령, 교육 수준, 성별, 직업(Lelkes, 2006; Sanfey & Teksoz, 2007; Easterlin, 2009; Guriev, et al, 2009; Guriev and Melnikov, 2018) 등의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하며, 젊은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원칙 및 방법론은 먼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지표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신뢰 및 기관별 신뢰, 협동, 관용, 연대, 공공심 등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 삶의 만족도(행복도) 관련 변수,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관련 의식구조 변수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의 추이와 영향요인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 축적과 삶의 만족도가 왜 서로 달리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추이를 추적하여 변수들의 변화 양상이 경제성장

및 제도적 요인들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 비교를 시도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전환국들의 유형화 가능성 검토(Inglehart-Welzel Cultural Map과의 관련성 탐구 등)를 통해 남북 통합시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전환국에 관한 심층 연구는 북한 체제의 제도적 특수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이행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II. 체제전환국의 행복도와 사회자본: 국제비교

1. 세계행복보고서를 이용한 분석

1) 세계행복보고서에 포함된 체제전환국

UN은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고위급회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2년에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이하 WHR)를 처음 발간했다. 그 후 행복은 사회진보의 적절한 척도이자 공공정책의 중심목표로 더욱 더 인식되어왔다. 급기야 2016년 6월 OECD(2016)도 고위급회의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성장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체제전환을 이룬 나라들 역시 그러한 전환의 성패는 사람들의 행복과 웰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은 가장 최근의 세계행복보고서인 WHR 2017의 국가별 행복도 분석에 포함된 체제전환국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동부 및 중부 유럽(CEE) 11개국(이들은 모두 EU 회원국), 남동 유럽(SEE) 5개국, 독립국가연합(CIS) 8개국, 아시아권 2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4개국이 포함되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북유럽(Nordic) 지역의 5개 국가(WHR 2017 기준으로 155개국 중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5위 핀란드, 9위 스웨덴)를 함께 제시했다.

〈표 1〉 World Happiness Report 2017의 체제전환국과 비교대상 북유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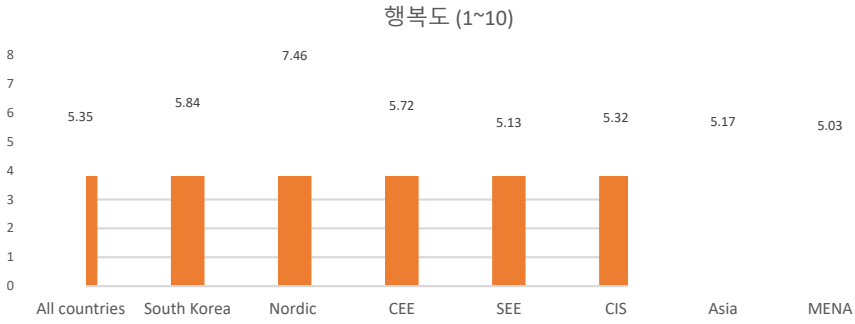
분류	지역		국가	비고
체제전환국	동유럽 및 구 소비에트 연방국가	동부 및 중부 유럽 (CEE)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11개국 (EU 회원국)
		남동 유럽 (SEE)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알바니아	5개국
		독립국가연 합 (CIS)	(중소득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
	(저소득국)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		8개국	
	아시아(Aisa)		베트남, 중국	2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모로코,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4개국
비교대상국	북유럽(Nordic)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5개국

주: *조지아는 2009년 탈퇴하였으나, 특성상 CIS 지역으로 분류

2) 체제전환국의 행복도 수준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도는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이하 GWP)에서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11점 척도(Cantril 사다리형) 질문(매우 불만족=0~10=매우 만족)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응답을 평균한 값이다. 〈그림 1〉은 WHR 2017의 국가별 행복도를 〈표 1〉에 분류된 지역군별로 단순평균(국별 인구수를 가중치로 삼지 않음)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세계 전체 국가, 한국, 북유럽 5개국의 행복도를 함께 표시했다. 역시 북유럽 5개국 이 약 7.5로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고, 한국은 세계 평균(5.4)보다 다소 높은 5.8이었다. 체제전환국들 가운데는 EU 회원국인 CEE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5.7 수준이었고, CIS가 5.3, 중국(5.273)과 베트남(5.074)을 합친 아시아 체제전환국 이 5.2, SEE가 5.1, 그리고 MENA가 5.0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1〉 WHR 2017의 행복도 비교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국가별 행복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도의 구성 요인들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두 6가지 요인으로, ① 1인당 소득(log GDP per capita), ②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③ 건강 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④ 생애 선택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⑤ 기부 실천(generosity), ⑥ 부패 인식 (perceptions of corruption)이다.²⁾ 사회적 지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된 개인의 관계형 사회자본이라면, 부패 인식은 그 사회의 청렴도와 관련된 시스템형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애 선택 자유는 자기의 삶과 관련된 선택에 주어진 자유에 대한 만족감(삶의 자기주도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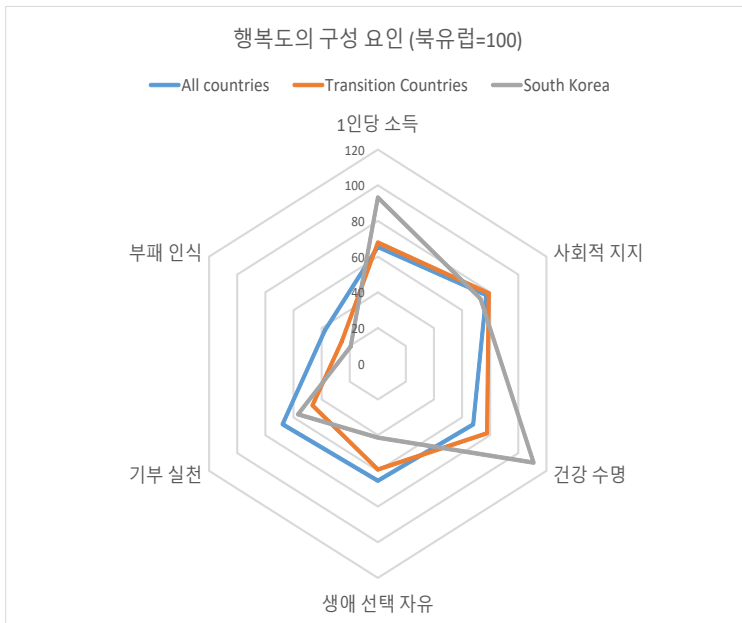
〈표 2〉 WHR 2017의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지역	행복도	행복도 구성 요인					
		1인당 소득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생애 선택 자유	기부 실천	부패 인식
전 세계 평균	5.35	0.98	1.19	0.55	0.41	0.25	0.12
체제전환국 평균	5.26	1.02	1.22	0.63	0.37	0.17	0.08
CEE	5.72	1.28	1.37	0.70	0.37	0.13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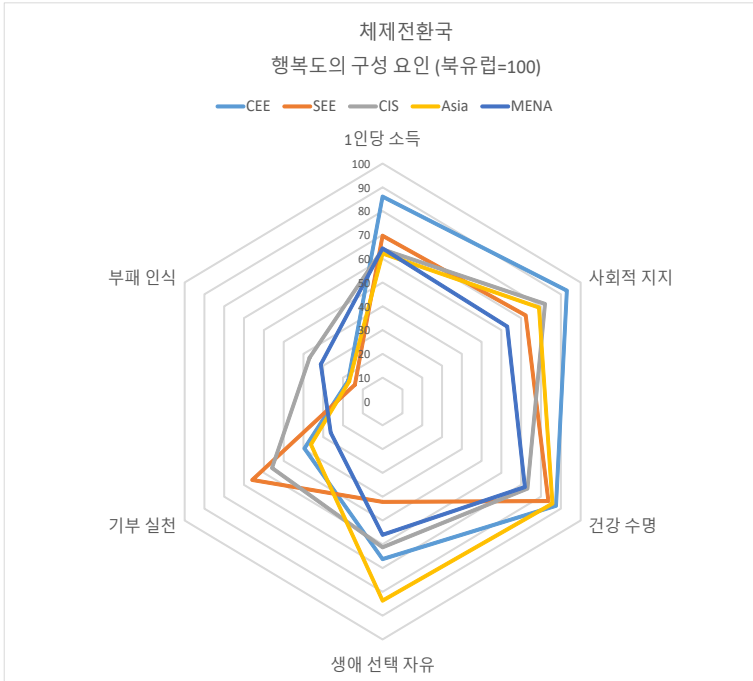
2) 실업률이나 소득불평등도 역시 국가별 행복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지만 해당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6개 요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http://worldhappiness.report/faq/> 참조).

SEE	5.13	1.05	1.12	0.68	0.26	0.24	0.05
CIS	5.32	0.96	1.26	0.60	0.38	0.20	0.12
중소득 CIS	5.78	1.24	1.43	0.60	0.37	0.14	0.10
저소득 CIS	4.98	0.82	1.20	0.57	0.36	0.22	0.12
아시아	5.17	0.93	1.22	0.70	0.52	0.13	0.06
MENA	5.03	0.97	0.97	0.58	0.35	0.10	0.10
북유럽	7.46	1.50	1.54	0.81	0.62	0.36	0.33
대한민국	5.84	1.40	1.13	0.90	0.26	0.21	0.06

〈그림 2〉 체제전환국과 한국의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북유럽 지수=100)



〈그림 3〉 체제전환국의 권역별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북유럽 지수=100)



가시적 비교를 위해 〈그림 2〉에서는 행복도의 6가지 구성 요인에 대한 북유럽 5개국의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현재 체제전환국들의 상대적 값의 크기를 나타내보았다.

체제전환국들은 북유럽 5개국에 비해 행복도가 70.5% 수준인데 사회적 지지(79%)와 건강 수명(77.7%)은 행복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고, 1인당 소득(67.9%)은 행복도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그런데 생애 선택 자유(59.2%), 기부 실천(46.5%), 특히 부패 인식(25.5%)에 있어서는 북유럽 5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삶의 자율성과 사회 차원의 시스템적 사회자본 측면의 결핍이 행복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결핍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행복도가 북유럽 5개국의 78.2% 수준에 그치는 것은 1인당 소득(93.2%)이나 건강 수명(110.8%, 한국이 매우 높은 편임)의 차이보다는 사회적 지지(73.1%), 기부 실천(56.7%), 생애 선택

자유(41.3%)의 결핍, 특히 부패 인식(19.3%)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북유럽 5개국과 행복도 구성 요인을 비교해보았다. 1인당 소득과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측면에서는 CEE가 양호한 편이고, 생애 선택 자유에 있어서는 아시아(특히 베트남)가 나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부패 인식과 기부 실천 측면에서 결핍도가 큰 편인데, 그나마 SEE의 기부 실천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MENA는 사회적 지지와 생애 선택 자유에 있어서도 다른 체제전환국들보다 빈약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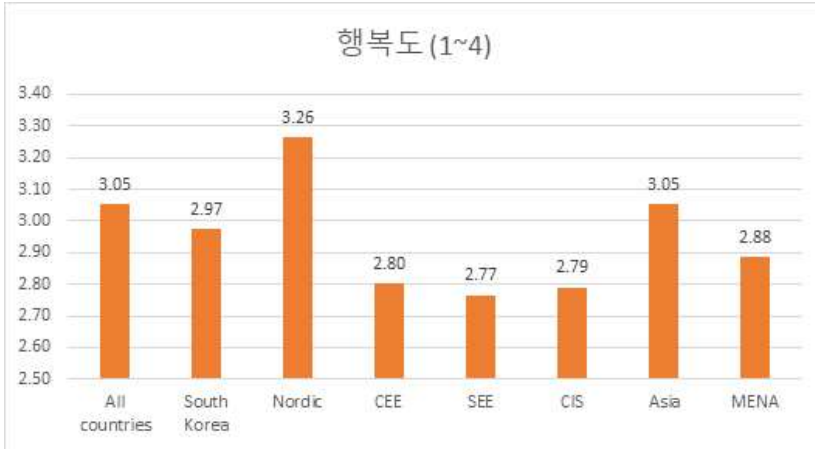
2. 세계가치관조사를 이용한 분석

1) 세계가치관조사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에는 각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에 대한 4점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음=1~4=매우 행복함) 질문을 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198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30여년을 포괄하고 있어, 각국별로 조사 시기와 빈도, 각 설문 항목의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관심인 사회자본, 특히 대인 신뢰와 기관 신뢰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경제적 가치관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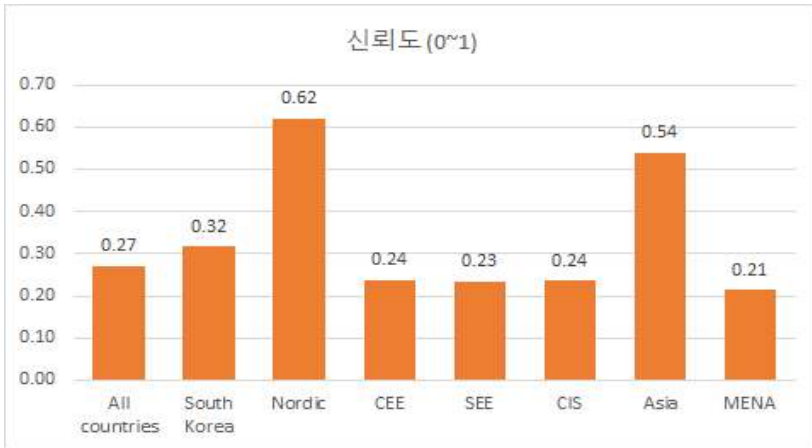
먼저 〈그림 4〉는 WVS 자료에 나타난 각국 국민의 행복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를 평균하고 체제전환국은 지역별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앞의 〈그림 1〉의 WHR 2017보다 포괄하는 국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시점에서 조사한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아닌 여러 시기의 국민 행복감을 평균한 것이라서 대등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4점 척도 행복감을 기준으로 할 때도, 북유럽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한국은 WVS 기준 세계 평균과 유사하며, 체제전환국들 중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의 행복감은 세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World Values Survey 1980~2014의 평균 행복도 비교



다음으로 〈그림 5〉는 WVS의 대인 신뢰(“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행복감보다 더 현격한 격차가 북유럽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에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인 신뢰 비율이 세계 평균 0.27을 크게 상회하는 0.62에 달하는 반면, 체제전환국들은 WVS에서 고신뢰국으로 조사되는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0.2대 초 중반의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 대인 신뢰 비율이 0.32에 그치며, 그나마도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0.38에서 0.27 수준으로 계속 하락해온 것이 발견되고 있다(김희삼[2017]).

〈그림 5〉 World Values Survey 1980~2014의 평균 대인 신뢰 비율



이제 각 조사 시점의 각국 응답자들의 행복감을 평균한 각 시점의 국가별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핵심적인 거시경제 변수들과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이 국가 수준의 행복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 변화 비교를 위하여 〈표 3〉에는 체제전환 이전 국가들과 비체제전환국을 비교하였고, 〈표 4〉에는 체제전환 이후 국가들과 비체제전환국을 비교하였다.

〈표 3〉 국가 수준의 행복도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 효과: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비교

변수	(1)	(2)	(3)
1인당 실질소득	0.0289*** (0.00839)		0.0275** (0.00846)
실업률	-0.00874** (0.00305)		-0.00840** (0.00306)
체제전환국		-0.169* (0.0852)	-0.0946 (0.0811)
상수항	3.186*** (0.0358)	3.174*** (0.0173)	3.190*** (0.0359)
관측치 수	146	146	146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 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표 3〉의 모형 (1)에는 1인당 실질소득과 실업률이 국가 수준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어 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고 실업률이 낮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체제전환국과 그 밖의 나라들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이 평균적으로 4점 척도 행복감이 약 0.17점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은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을 통제한 이후 체제전환국 행복감 감소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체제전환국의 낮은 행복감이 주로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4〉 국가 수준의 행복도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 효과: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비교

변수	(1)	(2)	(3)
1인당 실질소득	0.0545*** (0.0106)		0.0300** (0.00962)
실업률	-0.00895** (0.00314)		-0.00591* (0.00275)
체제전환국		-0.352*** (0.0351)	-0.298*** (0.0363)
상수항	3.064*** (0.0393)	3.174*** (0.0194)	3.165*** (0.0362)
관측치 수	202	202	202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 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표 4〉의 모형 (1) 또한 〈표 3〉 모형 (1)과 같이 실질소득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실업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체제전환 이후 국가들을 비교한 계수값이 현저히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모형(2)에서는 체제전환국이 비체제전환국보다 약 35점 정도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국이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행복지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모형 (4)에서 소득수준과 실업률을 통제했을 때 체제전환국 행복감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표 4〉에서는 체제전환국이 일관적으로 행복도 감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계수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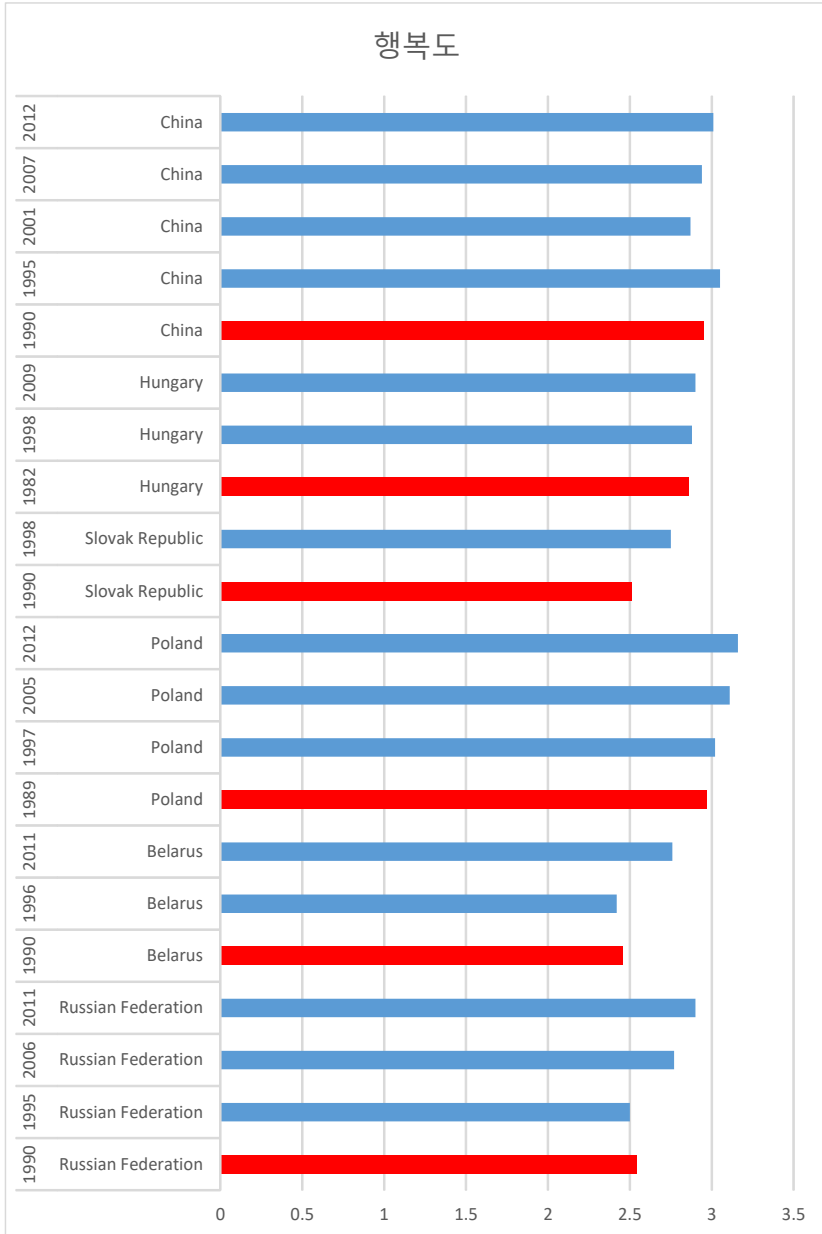
모형(2)에 비하여 낮아진 것을 보아, 체제전환국 행복도 감소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체제전환국으로 묶인 나라들도 체제전환 전후의 상황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구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되는 러시아와 동유럽권 및 중국은 20세기 말 시장경제로의 경제적 전환이 특징인 데 비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서는 2010년 12월 이래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혁명(이른바 ‘Arab Spring’)을 계기로 하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WVS 자료에 포함된 체제전환국들을 구 사회주의권과 MENA 지역으로 구분하여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체제전환 전후 추이를 각 그룹의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6〉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의 추이를 보면,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벨라루스는 체제전환 이후 행복도가 다소간 증가한 모습이다. 중국은 행복도의 부침이 있어 체제전환 후 1995년에 상승했다가 2001년에 하락했으나 그 후 조금씩 회복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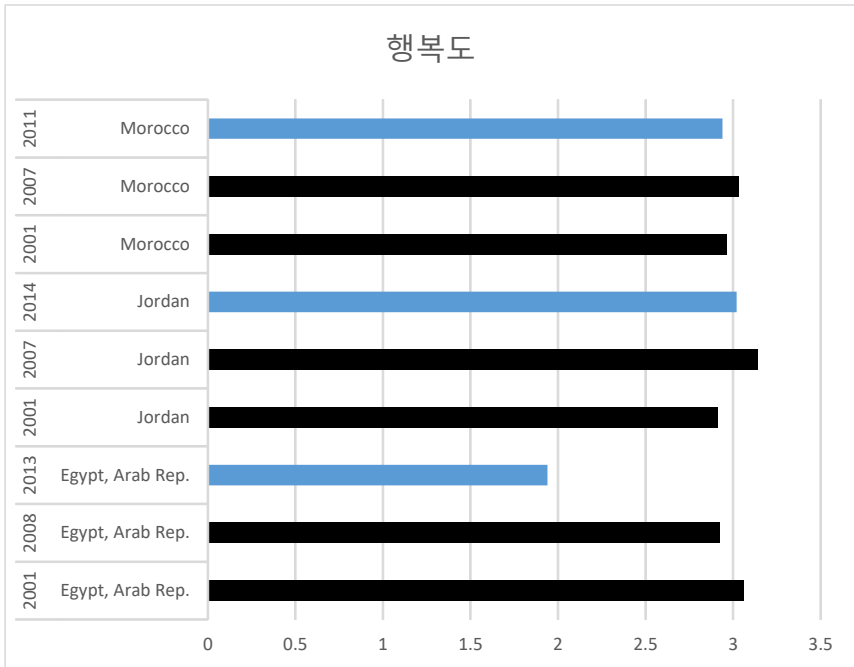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7〉에서처럼 MENA 국가들은 체제전환 후에 행복도가 다소간 하락한 모습이다. 특히 이집트는 체제전환 이후 4점 척도 행복도가 1점이나 급락했다. 이들 MENA 국가들은 2010년대 초의 체제전환 이후 관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직후 행복도 추이와는 확실히 다른 패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 변화



주: 붉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그림 7〉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 변화



주: 검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대인 신뢰 비율과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표 5>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국 포함) 및 <표 6>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국 포함) 에서 살펴보자.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무역, 금융, 인수합병, 기업 규모의 확대 등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 (Knack and Keefer 1997; Algan and Cahuc 2010)을 고려할 때 대인 신뢰 비율과 거시경제 변수들 간에는 역의 인과관계, 적어도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5> 및 <표 6>의 추정 결과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정도로 해석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표 5〉 국가 수준의 대인 신뢰 비율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의 효과: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비교

변수	(1)	(2)	(3)
1인당 소득	0.0537*** (0.00574)		0.0547*** (0.00578)
실업률	0.00163 (0.00214)		0.00134 (0.00215)
체제전환국		-0.0120 (0.0693)	0.0721 (0.0555)
상수항	0.152*** (0.0247)	0.263*** (0.0141)	0.150*** (0.0247)
관측치 수	146	146	146

주: 종속변수는 대인 신뢰 비율,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 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의 모형(1)에서 소득과 대인 신뢰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고소득 선진국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실업률은 대인 신뢰 비율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체제전환국과 그 밖의 나라들 간에 대인 신뢰 비율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³⁾ 모형 (3)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체제전환국의 대인 신뢰 비율은 그 밖의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이는 체제전환국 중 유독 대인 신뢰 비율이 높은 나라, 즉 60%대의 중국과 50% 수준의 베트남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표 6〉 국가 수준의 대인 신뢰 비율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의 효과: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비교

변수	(1)	(2)	(3)
1인당 소득	0.0456*** (0.00539)		0.0506*** (0.00556)
실업률	-0.00165 (0.00163)		-0.00233 (0.00161)
체제전환국		-0.0117 (0.0236)	0.0607** (0.0211)
상수항	0.207*** (0.0201)	0.263*** (0.0131)	0.186*** (0.0210)
관측치 수	202	202	202

주: 종속변수는 대인 신뢰 비율,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 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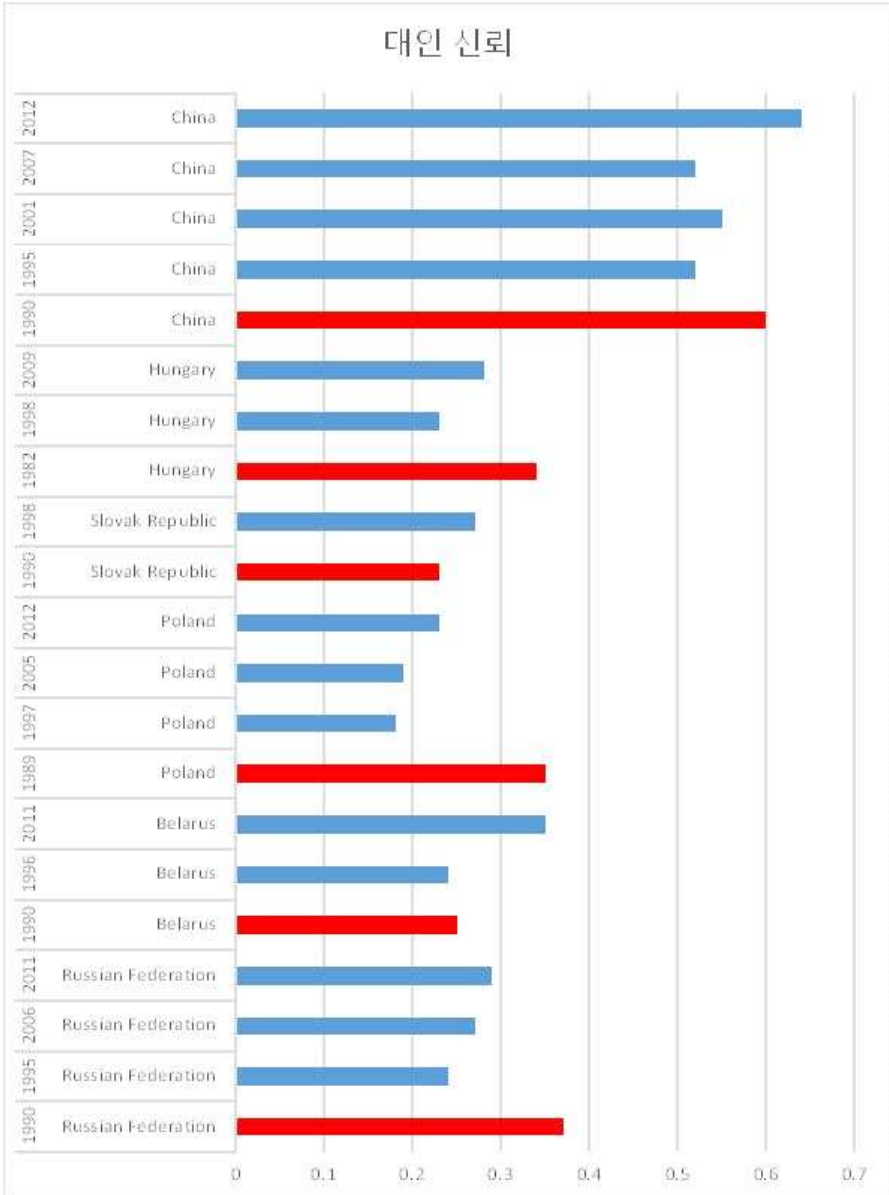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국들을 포함한 〈표 6〉에서도 소득과 대인 신뢰 비율은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모형 (1)). 모형 (2)에서는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사이 대인 신뢰 비율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지만, 거시경제 변수를 통제한 모형 (3)에서는 체제전환국의 대인 신뢰 비율은 그 밖의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사회적 신뢰는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수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⁴⁾

이제 다시 체제전환국들을 구 사회주의권과 MENA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인 신뢰 비율의 체제전환 전후 추이를 각 그룹의 국가별로 살펴보자. 〈그림 8〉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추이를 보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후 대인 신뢰 비율이 급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했으나 체제전환 전의 상태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벨라루스와 중국은

4)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통 사회의 가족 및 이웃 공동체 문화가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남아서 남녀노소 없이 사람들의 고립감이 낮은 편인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높은 대인 신뢰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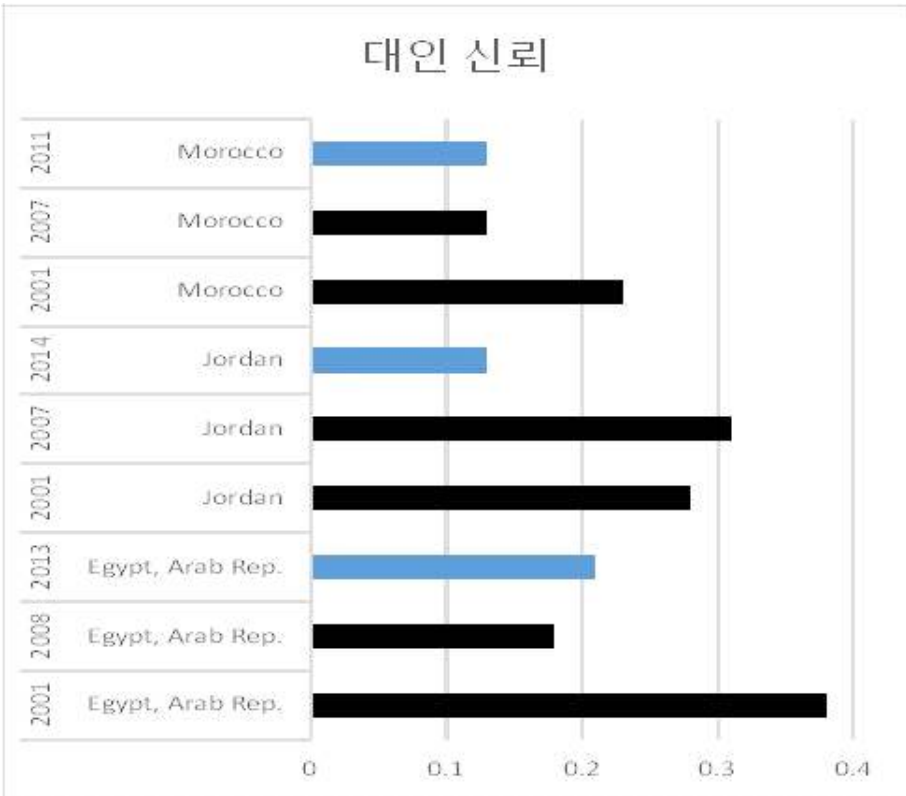


주: 붉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체제전환 후 하락했던 대인 신뢰 비율이 빠르게 회복되어 체제전환 전보다 조금 높아진 모습이다. 슬로바키아는 관찰 시점 간의 간격이 넓어 체제전환 후 대인 신뢰 비율이 다소 높아진 모습만 보여준다.

한편 <그림 9>에서 MENA 국가들을 보면 체제전환 전후로 사회가 요동친 모습이 대인 신뢰 비율의 변이에서 드러난다. 이집트의 경우 체제전환을 앞두고 대인 신뢰 비율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고, 모로코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요르단은 체제 전환 후에 대인 신뢰 비율이 급락했다.

<그림 9>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변화



주: 검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2) 국가별 행복도와 사회적 신뢰의 관계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사회적 신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표 5>는 각 조사시점의 국가별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에 각 시점의 국가별 대인 신뢰 비율 변수를 추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⁵⁾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이 국가 단위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표 3>의 Pooled OLS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모형 (2)에서 국가 단위의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7> 국가 단위의 행복도 결정 모형과 대인 신뢰 (확률효과 모형)

변수	(1)	(2)
1인당 소득	0.0526*** (0.0134)	0.0695*** (0.0145)
실업률	-0.0107** (0.00341)	-0.0106** (0.00335)
대인 신뢰		-0.384** (0.141)
상수항	3.085*** (0.0470)	3.158*** (0.0533)
관측치 수	208	207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 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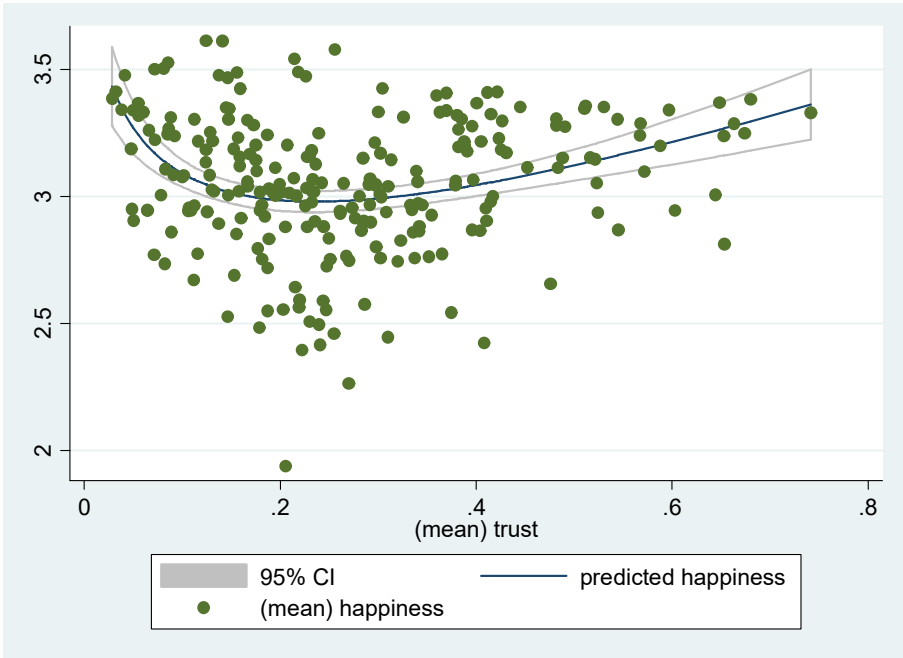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행복도와 부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직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0>에서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5) 체제전환국의 차이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Hausman 검정 결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기각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추정된 계수 값도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즉 국가별 변이를 국가별로 특수한 고정효과(절편의 차이)로 보지 않고 교란항의 일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점산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사이에 선형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림에서와 같은 비선형의 곡선 모양의 관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20% 이하의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도 행복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가 있어 자칫 사회적 신뢰와 행복도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인 신뢰 비율이 20%대를 넘어선 수준에서는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한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물론 이 관계는 국가 단위의 신뢰와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예컨대 1인당 소득)이 생략된 가운데 양자 사이의 단순 상관성을 관찰한 것에 불과하다. 가령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양자 사이에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부분의 변이가 <표 5>의 모형 (2)와 같은 결과를 낳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관계



위와 같은 발견은 WVS 자료에서 행복감과 대인 신뢰 변수가 조사된 모든 나라들의 국가 단위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조사 시점 간 추이를 국가별로 제시한 <그림 11>에서 재확인된다. 국가들 중에는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값은 매우 높은 나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추이를 보더라도 양자가 함께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조사 시점 간 변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⁶⁾

결국 개인 수준으로 조사된 행복감과 대인 신뢰 변수를 몽둥그려 국가 단위의 평균값으로 만든 집계변수를 사용한 경우, 행복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은 개인 수준의 미시 분석을 통해 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6) Hausman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함으로써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단위의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국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성장을 중심의 양적 변화를 추적한데 비해 ‘행복’과 ‘신뢰’라는 ‘주관적 변수’의 변화를 추적했다. ‘행복’은 물질 풍요(경제자본의 축적)와 분배 외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사회자본)와 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제전환기의 경제성장이 수반한 사회적 현상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체제전환 연구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양적 성장’의 요인분석과 결과 탐구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체제전환국의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했고, 특히 1인당 실질소득, 실업률 등 거시경제 관련 변수들, 삶의 만족도(행복도) 관련 변수, 새인 신뢰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은 북유럽 5개국의 행복도를 100으로 할 경우 70.5% 수준이었고, 사회적 지지(79%)와 건강 수명(77.7%)은 행복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다. 1인당 소득(67.9%)은 행복도 차이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내용은 생애 선택 자유(59.2%), 기부 실천(46.5%), 특히 부패 인식(25.5%)에 있어서는 북유럽 5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삶의 자율성, 사회적 차원의 연대 시스템, 사회자본의 결핍 등이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행복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체제전환국들은 대인 신뢰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행복도보다 더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인 신뢰 비율이 세계 평균 0.27을 크게 상회하는 0.62에 달하는 반면, 체제전환국들은 아시아의 예외적 국가를 제외하면 0.2대 초중반의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모형 (3)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전환국 중 경제적 수준은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모형 (4)에서 체제전환 이후와의 교호항을 추가했을 때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요컨대 사회적 신뢰는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수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사이에 선형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림(1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비선형의 곡선 모양의 관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 이하의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도 행복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가 있어 자칫 사회적 신뢰와 행복도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인 신뢰 비율이 20%대를 넘어설 경우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욱 행복한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변수 외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변화를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여러 요인 중 ‘신뢰’,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행복도를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동일 국가 내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집단별, 개인별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체제전환 국가를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구성하여 비교할 때 국가별로 차이가 관찰되듯 체제전환국 내부에서도 집단별, 개인별 격차는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해당 국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희삼. (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Bartolini, S., Mikucka, M., & Sarracino, F. (2017). Money, Trust and Happiness in Transition Countries: Evidence from Time Se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106.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i Tella, R., MacCulloch, R., & Oswald, A.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Easterlin, R. A. (2009). Lost in transition: Life satisfaction on the road to capitalis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 130-145.
- Fleurbaey, M. (2009). Beyond GDP: The Quest for a Measurement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4): 1029-1075.
- Guriev, S., & Zhuravskaya, E. (2009). (Un) Happiness in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3(2): 143-168.
- Guriev, S., & Melnikov, N. (2018). Happiness Convergence in Transition Countr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3), 683-707.
- Hayo, B. (2007). Happiness in transition: An empirical study on Eastern Europe. *Economic Systems*, 31: 204-221.
- Helliwell, J.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 C34-C45.
- Helliwell, J.,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4): 595-619.
- Helliwell, J. F., & Huang, H. (2014). New measures of the costs of unemployment: Evidence fro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3.3 million Americans. *Economic Inquiry*, 52(4): 1485-1502.
- Helliwell, J.,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In B. K. F. A. Huppert, *The Science of Well-Being* (pp. 435-45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 Kilgus, H.-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 Diener,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pp. 165-183). Cambridge, MA: MIT Press.
- Kahneman, D. (1999). Objective Happiness. In D. edited by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3-25).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Lelkes, O. (2006). Tasting freedom: Happiness, religion and econom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73-194.
- Mikucka, M., Sarracino, F., & Dubrow, J. K. (2017). When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Life Satisfaction? Multilevel Analysis of the Roles of Social Trust and Income Inequality in 46 Countries, 1981-2012. *World Development*, 93: 447-459.
- Norton, E. C., Nizalova, O., & Murtazashvili, I. (2018). Does past unemployment experience explain the transition happiness gap?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3): 736-753.
- Sanfey, P., & Teksoz, U. (2007). Does transition make you happy? *Economics of Transition*, 15(4): 707-731.
- Winkermann, L., & Winker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1-15.



A Study on Changes i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Transition Countries

Changyong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Hisam Kim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Hyeyoung Woo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This study explores qualitative changes such as 'happines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with an aim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that focused on quantitative changes, such as economic growth. In order to compare national level happiness in those transitional countries,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were mobilized as proxy variables constructed by the World Value Surveys.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deep-meaning of the transition, that is, the changes in the value of the parameter by comparing the variable to the level of the Nordic countr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ransition countries had a 70.5% level of happiness compared to the Nordic countries, whil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was much lower than the 0.62 level in the Nordic countries. Noteworthy findings ar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there are high cases of happiness observed even in countries with low interpersonal trust ratios of less than 20 percent, but the happiness index has risen significantly in countries with interpersonal trust above 20 percent.

[Key Words: Transitio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Interpersonal Trust, Social Capital]

논문접수일: 2020년 3월 4일

논문수정일: 2020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1일

제1저자(교신저자): 최창용(Changyong Choi)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개발협력과 거버넌스 개혁, 사회변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개발 협력과 사회적 경제 등에 관심이 있다(cychoi@kdischool.ac.kr).

제2저자: 김희삼(Hisam Kim)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자본 구축과 교육의 역할, 행복과 사회의 질,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hisamkim@gist.ac.kr).

제3저자: 우혜영(Hyeyoung Woo)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정책자문2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체제전환국의 정치신평, 노동시장, 행복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ywoo@kdi.re.kr).